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4차회의

일시:2012년 10월 8일 장소: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 8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임선숙·조미옥·윤영현·강대석·천성권·노미향·이묘숙·경훈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지역현안에 관한 광주일보 제작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후보들 주요공약 비교 실천가능성 다뤄줬으면

강대석 (전 전남공무원교육원 원장)

독자위원들의 쓴소리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지역 전체 문제 안되도록
나주 성폭행 용어 신중히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상추없는 상추튀김 상호까지
상인들 입장도 고려했으면

임선숙 (변호사)

어등산 골프장·특급호텔 등
후속기사 더 보도했어야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가계부채·지역산업경제 현황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 좋아

▲**강대석**=네 번째 독자위원회를 맞이하게 됐다. 금년 여름 혹독하게 더웠고 태풍에 추석도 있고 일이 많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다. 독자위원을 하면서 더 유심히 지면을 살펴보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다.

▲**조미옥**=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정석 사건의 경우 나주 초등생 성폭력범,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 사건 등 기사에 용어가 통일되지 못했고 나주가 부각돼 지역민이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 지역 언론에서 지역의 명예를 살피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나주 성폭행 하니까 나주 전체가 그런 것처럼 수치심을 느낀다.

통학버스가 안전성을 가지고 운행되는 것인가에 대해 두 차례 기사를 다뤘는데 적절했다. 후속조치 기사가 더해지면 좋겠다. 불안감을 제시했다면 얼마나 안전하게 준비가 됐는지,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기대하게 된다. 입시 정보에 대해 학부모, 학생들 궁금해하고 어려워 하는 만큼 교육관련 기사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9월28일자 '가족이 힐링이다' 특집기사는 추석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보름달 같은 기사였다.

▲**경훈**=9월24, 25일 지역축제 이대로 안 된다는 기획기사가 나갔다. 매년 축제를 어디든지 다한다. 난립중복, 성과부풀리기 등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지역축제를 보도 할때 예산에 예민하니까 공연같은 것에 대해서도 인원 부풀리기를 하고 그런다. 그런 보도는 지양하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나 등 스토리나 진행과정 에피소드 소개하면 좋겠다.

9월5일 상추 없는 상추 튀김, 낙지 없는 낙지골목이라는 기사가 나갔다. 태풍피해로 상인들이 농수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중고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독자들이 미리 예견을 하고 상추튀김집, 낙지집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사에는 업체상호까지 나왔다. 상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면 좋겠다.

▲**임선숙**=1면에 톱기사의 경우 후속 설명 기사가 따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부적인 기사가 따라 붙어서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중요한 사안은 쭉 흐름을 가지고 보는데 중간에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어등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9월18일에는 사실관계만 보도했다. 20일자에는 광주시가 수용하는 결정을 한 뒤에 광주일보가 계속해서 강력한 반대를 해왔고 시가 이를 반대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 기사가 나왔다. 왜 갑자기 논조나 의견이 바뀌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반발 우려가 있다고 하면 후속기사들이 더 나와서 의견이나 해법이 제시됐어야 한다. 기사가 끊어져서 나오는 느낌이다.

9월27일 특급 호텔 들어선다는 기사가 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시입장만 설명한 기사였다. 시 관보도 아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야 한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의견이 얘기된다면 사업자 수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후속 기사를 보지 못했다.

▲**윤영현**=8월 경제 기획기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 지역 산업경제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한중 20주년 관련해서도 광주·전남과의 관계를 잘 다뤘다. 중앙지의 경우 단편적이거나 중앙 중심의 통계만 나오는데 광주·전남 경제의 상황과 지역 현실을 보고 제안을 제시하는 게 좋았다. 기아 자동차의 생산 확대,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 광주 경제의 밝은 측면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알렸으면 한다.

압축되는 대선 후보들 지역 경제나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 다뤄줬으면 한다. 노동법적 측면에서 보면 표심을 얻기 위해 인기 영합적으로 가는 법 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측면이 많다. 향후에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한다.

▲**노미향** =얼마 전 신문이 제대로 배달 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럴 경우 신문사의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올림픽 보도의 경우 광주일보 지면은 적절했던 것 같다. 여수 엑스포는 시작과 끝부터 너무 나온 것 같다. 지역 축제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일조를 해야하지만 관심없는 사람들, 다른 것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지면할애가 많았다.

8월16일 교육청이 보문고 자사고 유지를 위해 대책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일에는 보문고 사과문 발표 광고가 들어갔는데 같은 날 사설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라는 글이 실렸다. 앞에는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설이 뒤늦게 실린 것을 보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월4일 사회면에 기간제 교사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교육청 입장,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실렸으면 한다.

또 대선 후보 복지 정책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사가 실렸으면 한다.

▲**이묘숙**=추석기사 좋은 내용이 많았다. 특히 가족 힐링의 경우 주부들은 명절이 곤욕스러운데 가족들과 갈만한 곳을 추천해주는 등 기사 내용이 좋았다.

주부들이 추석 선물 고민을 하는데 지역 향토적인 선물이나 어느 지역에 뭐가 좋다는 정보가 있다면 장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9월13일 지역 우수 상품 소개가 있었지만 주부에게는 와 닿지 않은 부분이었다. 8월21일자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싸다는 기사는 그래픽 덕분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체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다뤄주면 좋겠다.

지역 축제도 문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뒤에는 즐길만한 지역축제라고 해서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나왔다.

8월24일 멱감던 광주천 되찾는다는 기사에 300억을 들여서 광주천에 물놀이 시설을 두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게 어울리고 합당한 것인가를 언론에서 집어줬으면 한다. 시청 보도자료만 쓰는 게 아니라 거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남공원이 폴리 때문에 폐허가 되는 것 보면서 어느 누가 관리하냐만 생각하고 있지 차후에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지나친 전시행정으로 부채가 많은데 언론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월8일 인천 항공 노선 추진 기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봤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던지기식이 아니라 후속 보강 기사 필요하다. 호남고속철 문제 이런 것도 국가나 국회의원의 보고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심층취재를 하면 어필 될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5522억원 더 걷어졌다는 기사로 일정기간이 되면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당장 광주에서 서울로 갔을 때 예시를 들거나, 차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좋았을 것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기사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런던올림픽 보도 적절
여수엑스포 지나친 지면할애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지역축제 문제·즐길만한 축제
상반된 내용 동시 게재 '혼란'

천성권 (광주대 학생지원처장)

기간제 교사 문제
학교-교육청 양쪽입장 취재를

▲**천성권**=지역 언론들이 비슷하게 논조가 중간에 바뀐다. 학교 기간제 교사가 많다는 문제의 경우 기사로만 보면 독자들은 이러지 않으면 안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이유와 입장이 있는데 양쪽의 입장을 함께 취재해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최대 이슈가 대선인데 그날 그날 후보들이 발표한 것과 일정 위주로만 다루고 있는데 시리즈식으로 대표적인 공약사업 등을 비교하면 독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면 기다려 질 수 있다.

학교 폭력이 기사에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최대한 근절할 수 있도록 릴레이식으로 다루면 좋겠는데 아쉽다.

▲**강대석**=대체적으로 독자위원들이 쓴소리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애매한 상황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어줄 수 있는, 정치 1번지 호남의 대변지로서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외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광주 신가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동구 선교동 충전소,대지1,014P, 매가21억(4차선대로접)
* 장성 백양사입구 모텔 및 식당(성업중)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자동차검사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장성,삼서면 대곡리,대지526평,매가1억2천만
*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전200P,창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함평나산면 초포리,계획관리지역,4천평,,평당6만.
* 영광군 홍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읍,덕진리 대로변,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철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전남북일원 새싹재배단지조성부지 1만평이상(6M이상도로접)
* 광주,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장성,담양,화순,함평등 오리축사부지 가능한 전답 및 임야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광주권내 씽크대 제조공장 창고 및 공장부지 500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등)
* 광주 북구 신안동 중흥동 상업용지 300여평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 가 임 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가 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염 전
양어장
(폐염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대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림!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 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두암동7층건물 164평
건물약600평(31억)
임대보증금 약5억 월1,500만원
토 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번화가 사거리코너)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동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